

2022 산업단지 휴게실·복지 실태조사 분석결과

박준도 |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장명호 |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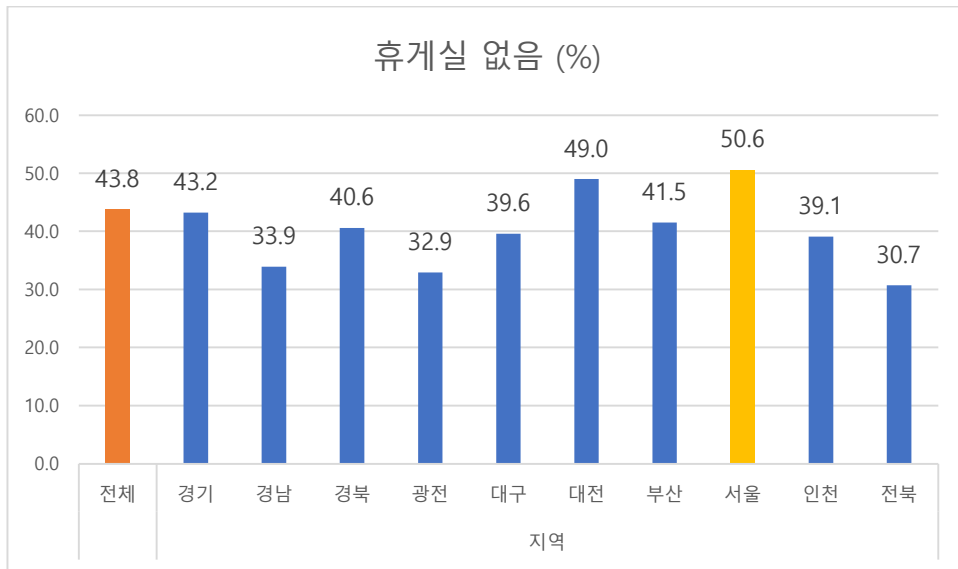
산업단지 노동자의 43.8% 휴게실 없어.

휴게실 부족할 수록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직접적 피해

기존 휴게실 공간도 좁고 개수도 부족해. 개선할 것 많아.

공동휴게실 부족한 휴게실의 좋은 대안. 노사정 현실화시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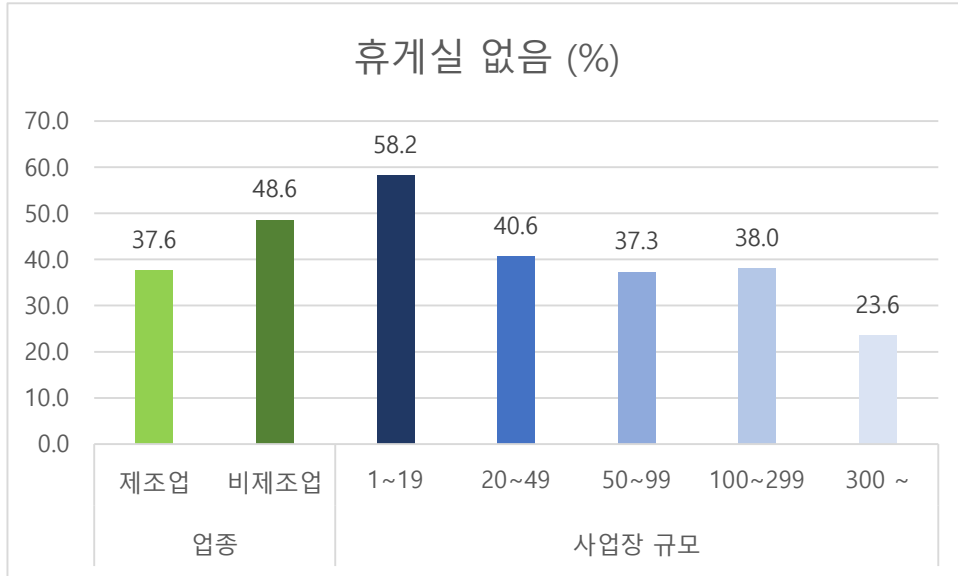
1. 산업단지 사업장 휴게실 현황



지역별 휴게실 유무 (전체)

	전체	비중	경기	경남	경북	광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1개	1,601	39.8	34.3	42.2	31.1	44.1	40.4	33.3	39.3	38.8	43.0	50.0	44.7	48.9
2개 이상	660	16.4	22.5	24.0	28.3	23.1	20.0	17.7	19.2	10.6	17.9	19.3	22.7	18.2
없다	1,760	43.8	43.2	33.9	40.6	32.9	39.6	49.0	41.5	50.6	39.1	30.7	32.6	33.0
계	4,0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 노동자 4,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8%가 휴게실이 없다고 대답함. 중소벤처 사업장이 밀집된 서울 산업단지의 경우 50.6%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 2명 중 1명이 휴게실도 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



업종별, 규모별 휴게실 유무 (전체)

	전체	비중	제조업	비제조업	1~19	20~49	50~99	100~299	300 ~
1개	1,601	39.8	39.6	39.7	36.1	46.7	43.8	39.4	35.5
2개 이상	660	16.4	22.8	11.7	5.6	12.7	18.9	22.7	40.9
없다	1,760	43.8	37.6	48.6	58.2	40.6	37.3	38.0	23.6
계	4,0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특히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보다는 작은 사업장에서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8.2%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함.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3.6%인 것에 비하면 34.7%p나 차이가 남.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0.6%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함.

제조업 업종별 휴게실 유무 (전체)

	제조업	식품제조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제조
1개	39.6	48.8	33.9	18.2	38.8	53.3	36.8	42.5	37.4	41.5	43.8
2개 이상	22.8	26.7	11.3	22.7	24.6	26.7	33.3	18.6	20.7	31.6	14.4
없다	37.6	24.4	54.8	59.1	36.6	20.0	29.8	38.9	41.9	26.9	4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제조업 업종별 휴게실 유무 (전체)

	비제조업	정화		사업		전문	출판	IT	도	음식	보건	교육	기타					
		건설	재생	금융	부동산	지원	기술	방송	정보	통신	소매	운수				숙박	가사	복지
1개	39.7	22.6	65.4	53.1	38.2	51.5	41.1	36.7	40.0	47.1	37.3	44.1	36.1	31.0	33.7	37.0	47.4	38.9
2개 이상	11.7	9.7	11.5	23.4	8.8	11.0	7.3	6.7	13.7	35.3	8.4	23.7	8.3	0.0	6.4	20.4	15.8	13.9
없다	48.6	67.7	23.1	23.4	52.9	37.6	51.7	56.7	46.3	17.6	54.2	32.3	55.6	69.0	59.9	42.5	36.8	4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세부 업종별로 보면, 섬유 의복(54.8%), 목재 종이(59.1%), 전기 전자(41.9%), 건설(67.7%), 부동산(52.9%), 전문 기술(51.7%), IT·정보(46.3%), 도소매(54.2%), 음식 숙박(55.6%), 보건 복지(59.9%) 분야에서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전통적으로 영세하거나 노동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는 건설, 섬유 의복, 음식 숙박업 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 IT·정보 통신 등 신형 산업에서도 휴게실이 없는 곳이 많이 나타남.

“휴게실이라고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회사 1층에 탕비실이 있는데, [인터뷰이의] 제 방보다 작아요. 의자 하나, 작은 소파, 커피 머신기가 전부예요 ...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제 자리에서 잠깐 숨 돌리는 게 휴식의 전부예요.” (345, 제조업, 전문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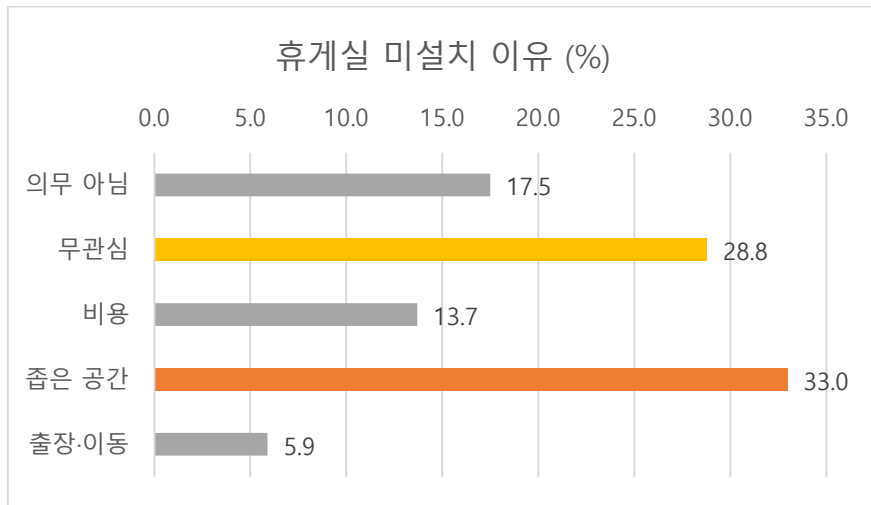
직종별 휴게실 유무 (전체)

	전체	비중	생산직	사무판매직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숙련직	반숙련직	단순직
1개	1,601	39.8	44.8	37.8	34.5	39.3	40.1	37.3	38.8	44.3	48.9
2개 이상	660	16.4	24.0	13.3	14.5	14.1	8.4	7.6	13.2	27.6	17.9
없다	1,760	43.8	31.2	48.9	50.9	46.7	51.5	55.1	47.9	28.0	33.2
계	4,0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종별로는 생산직보다는 사무 판매직(비생산직)에게서 휴게실이 없다는 비중이 높음 48.9%임. 그렇다고 생산직이라고 휴게실이 충분한 것도 아님. 31.2%가 휴게실이 없다고 대답했기 때문.

“휴게실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어요. 일하는 곳에서 쉬는 건 눈치 보이고, 그래서 옥상, 야외, 나무 그늘 같은 데서 쉬어요. ... 흡연자는 잠깐씩 나갔다 들어오고, 비흡연자는 화장실에 앉아서 쉬거나 실험실에서 잠깐씩 걸어나다니며 이야기해요. 일하는 공간과 분리된 휴게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351, 제조업, 생산직)

2. 휴게실 미설치 이유



지역별 휴게실 미설치 이유 (전체)

	전체	비중	경기	경남	경북	광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의무 아님	306	17.5	202	109	7.1	106	11.8	21.3	223	18.6	15.8	179	11.6	24.1
무관심	504	28.8	263	28.1	28.6	38.3	32.7	27.7	28.7	28.4	30.8	20.9	37.2	27.6
비용	239	13.7	9.6	15.6	35.7	27.7	19.1	6.4	7.4	12.8	12.5	17.9	16.3	13.8
좁은 공간	577	33.0	35.9	37.5	23.8	14.9	29.1	31.9	33.0	34.9	33.3	28.4	18.6	31.0
출장·이동	104	5.9	7.1	7.8	4.8	6.4	6.4	10.6	7.4	4.0	5.0	14.9	16.3	3.4
다른 공간	20	1.1	1.0	0.0	0.0	2.1	0.9	2.1	1.1	1.2	2.5	0.0	0.0	0.0
계	1,75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업장에 휴게실이 왜 없냐는 질문에 좁은 공간 탓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아. 33.0%. 두번째로 꼽히는 이유는 사업주의 무관심. 28.8%. 비용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13.6%밖에 안 됨.

“옛날 사무실에는 휴게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이사가면서 휴게실이 없어졌어요. 휴게공간을 배제하고 설계한 거예요. ...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58, 제조업, 사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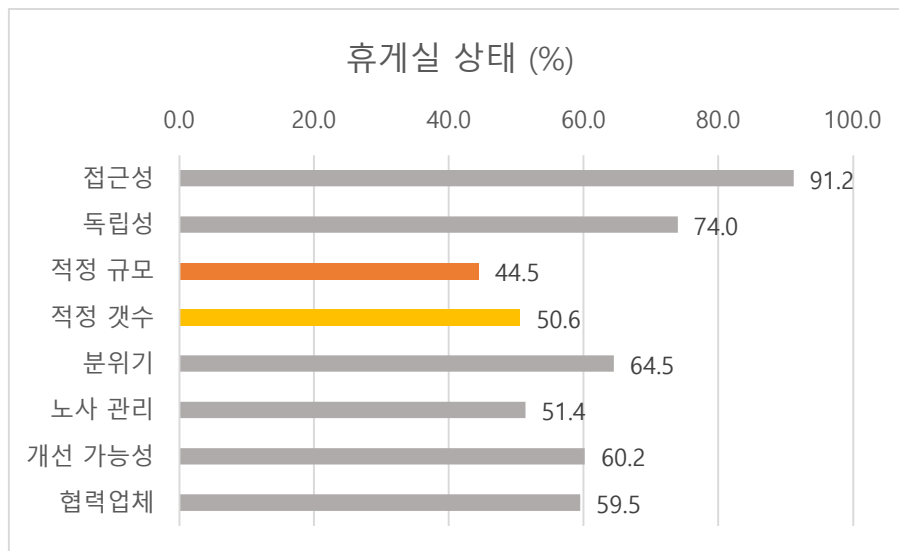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해봤는데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것도 다 휴게시설이 있어요. 소파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작년에 새로 개장한 곳인데,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안 넣어줬어요. 아예 고려하지도 않은 거예요. 도시락 먹을 공간도 없고, 나가서 먹고, 차에서 먹고 해요.” (1025, 사업서비스업, 시설관리)

업종별, 규모별 휴게실 미설치 이유 (전체)

	전체	비중	제조업	비제조업	1~19	20~49	50~99	100~299	300 ~
의무 아님	306	17.5	17.5	17.6	14.7	19.1	16.8	22.4	23.0
무관심	504	28.8	31.7	27.8	27.7	29.2	35.1	29.7	23.0
비용	239	13.7	14.7	12.6	11.9	14.0	13.9	18.3	15.1
좁은 공간	577	33.0	31.1	33.7	37.9	29.6	30.7	23.6	30.9
출장·이동	104	5.9	4.0	7.1	6.9	6.3	3.5	4.1	6.3
다른 공간	20	1.1	0.9	1.2	0.8	1.8	0.0	2.0	1.6
계	1,75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용보다도 공간이 좁거나 무관심해서라는 응답비중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높게 확인됨. 37.9%가 공간문제를 꼽은 것. 공간문제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장은 물론 300인 대기업 사업장도 예외가 아님. 30% 이상이 공간문제를 꼽고, 20%이상은 무관심을 지목. 휴게실 문제는 비용보다는 사업주의 관심과, 작업장이나 사무실의 업무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인근 공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문제라는 걸 시사.

3. 좁고 부족한 휴게실, 파견노동자에게겐 제한된 휴게실



지역별 휴게실 환경 (전체)

	접근성	독립성	적정 규모	적정 개수	분위기	노사 관리	개선 가능성	협력업체
전체	91.2	74.0	44.5	50.6	64.5	51.4	60.2	59.5
경기	92.7	73.8	45.0	48.8	67.7	56.2	65.0	63.1
경남	91.3	73.2	53.5	56.7	70.9	56.7	66.9	74.0

	접근성	독립성	적정 규모	적정 개수	분위기	노사 관리	개선 가능성	협력업체
경북	87.3	77.8	38.1	46.0	58.7	61.9	66.7	65.1
광전	91.7	64.6	53.1	55.2	68.8	67.7	71.9	63.5
대구	84.6	76.9	40.2	49.1	65.1	40.2	43.2	52.7
대전	89.8	77.6	38.8	55.1	63.3	59.2	65.3	69.4
부산	92.5	67.9	38.1	45.5	64.9	64.9	66.4	61.9
서울	93.6	74.8	42.9	50.4	63.5	47.4	58.4	55.4
인천	81.8	72.7	41.7	41.7	62.6	45.5	51.3	57.2
전북	93.4	81.5	53.0	60.3	70.2	51.7	67.5	62.9
충남	88.8	66.3	47.2	50.6	46.1	43.8	50.6	56.2
충북	94.9	76.3	54.2	59.3	69.5	64.4	81.4	71.2

휴게실이 있다 할지라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접근성(5분 거리) 요건만 만족할 뿐, 일하는 곳에서 ‘독립적인 공간에 있는가’라는 독립성 요건도 74.0%만이 그렇다고 대답해 만족스러운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님. 사업장 인원 대비 공간 규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44.5% 만이 ‘족지 않다’고 대답함. 회사 규모 대비 휴게실 숫자에 대해서는 겨우 과반을 넘긴 수준. 응답자의 50.6% 가 ‘부족하지 않다’고 대답함.

노사가 협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51.4%만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휴게실 운영과 개선가능성에 대해서는 60.2% 만이 그럴 수 있다고 대답. 협력업체가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59.5% 만이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함.

업종별, 규모별 휴게실 환경 (전체)

	접근성	독립성	적정 규모	적정 개수	분위기	노사 관리	개선 가능성	협력업체
전체	91.2	74.2	44.9	50.9	64.5	51.3	60.3	59.4
제조업	91.1	75.4	46.9	51.6	66.8	52.4	60.2	63.9
비제조업	91.3	73.1	42.9	50.3	62.3	50.2	60.5	55.1
1~19	93.2	72.8	52.3	67.0	68.6	50.0	61.1	59.6
20~49	93.1	72.7	46.1	53.7	67.1	48.3	57.4	57.8
50~99	89.3	72.2	39.7	44.1	59.7	48.4	56.2	58.8
100~299	87.6	76.1	39.3	35.3	60.0	53.5	59.0	60.2
300 ~	91.0	77.3	41.1	43.3	64.1	57.7	67.2	61.1

접근성(5분 거리)이나 독립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업종으로나 사업장 규모로나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음. 하지만 인원 대비 공간과 사업장 규모 대비 휴게실 숫자에 대해서는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보다는 100인 전후한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박하게 평가하고 있음.

20인 미만 사업 노동자들은 52.3%가 족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노동자

들은 60.7%가 좁다고 평가하고 있음. 회사 규모에 비해 휴게실 숫자는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 역시 10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서 휴게실 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음. 35.3%만이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 휴게실이 있더라도 인원 대비 공간이 좁거나 회사 규모에 비해 휴게실 개수가 부족한 것.

[300인 이상 사업장인데] 탕비실하고 탈의실이 전부예요. 탈의실은 멀리 있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예요. 휴게실은 없고 흡연실만 있어요. (3684, 제조업, 반숙련직)

휴게실 겸 회의실·면담실이 있고, 작은 소파가 있어요. 휴게실 말고도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고, 공간도 좁아서 휴식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피곤한 사람 한두 명만 소파에서 쉬는 정도예요. 일찍 출근하고 점심 먹은 사람이 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4115, 제조업, 생산직)

지역별 하청·협력업체를 위한 휴게실 (전체)

	전체	비중	경기	경남	경북	광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없다	989	43.7	408	30.7	28.6	41.7	53.9	26.5	32.1	48.4	41.7	48.3	39.3	44.1
같이 사용	1,032	45.6	485	56.7	46.0	49.0	39.6	63.3	51.5	43.2	43.9	39.1	47.2	54.2
따로 사용	240	10.6	108	12.6	25.4	9.4	6.5	10.2	16.4	8.3	14.4	12.6	13.5	1.7
계	2,2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업종별, 규모별 하청·협력업체를 위한 휴게실 (전체)

	전체	비중	제조업	비제조업	1~19	20~49	50~99	100~299	300 ~
없다	989	43.7	39.7	48.4	48.2	44.6	46.1	42.5	35.5
같이 사용	1,032	45.6	51.0	40.1	44.1	49.1	44.4	45.0	45.5
따로 사용	240	10.6	9.3	11.6	7.8	6.3	9.6	12.4	19.1
계	2,2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청·협력업체와 휴게실을 같이 사용한다는 응답률은 45.6%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남. 다만 따로 사용한다는 응답 비중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높게 나타났고, 대신 협력업체 휴게실이 아예 없다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 듭.

SI(System Integration) 업무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파견이에요. 원청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원청에 가서 해야 하나니까요. ... 거기 휴게실이 있는데, 원청 사원증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카페트리에 가도 커피를 먹을 수가 없어요. **복지포인트로만 먹을 수 있거든요. 거기선 쉴 공간이 없어요.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파견 나가보니

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 휴게실 문제는 파견 받는 회사가 해결해줘야 해요. 그 회사를 위해 거기에 가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모른 척해요. (4442, 정보통신, 사무직)

원청 휴게실하고 협력업체 휴게실하고 따로 있어요. 시설·설비도 차이가 크고요. 정규직이 이용하는 헬스장, 샤워실을 이용하면 눈치 줘요. 근무지 이탈이라는 거예요. ...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해요. 휴게실이라기보다는 상주하면서 작업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그나마 저희들이 쉴 곳이에요. ... 곰팡이 슬고, 환풍기도 작동 안하고, 보수해야 할 것이 많아요. 여기 휴게실 보수하려면 원청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러다보니 쉽지 않아요. 생활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청결해야 휴게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공간마저도 원청에서는 자꾸 없애려고 해요. (4397, 제조업, 반숙련직)

위 인터뷰 내용은 각각 휴게실이 없는 노동자와 공간이 분리된 휴게실의 노동자가 원청과 달리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파견노동자와 사내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력은 원청이 직접 소비하는 만큼 원청이 휴게공간을 제시하고, 기존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휴게시설 문제를 해결하려면 휴게공간의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데, 이 또한 원청이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 원청이 나서야 휴게공간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음.

4. 휴게실 이용 현황

지역별 휴게실 이용현황 (전체)

	전체	비중	경기	경남	경북	광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매일	1,131	50.0	50.0	59.1	47.6	65.6	63.3	63.3	53.7	40.7	56.7	55.0	42.7	59.3
주 1~2 회	478	21.1	23.5	16.5	15.9	15.6	16.6	22.4	26.1	24.2	20.3	15.2	20.2	15.2
월 1~2 회	98	4.3	5.8	2.4	3.2	2.1	3.5	2.0	2.2	6.2	1.6	4.0	3.4	0.0
이용 안 한다	554	24.5	20.8	22.1	33.3	16.7	16.6	12.2	17.9	28.9	21.4	25.8	33.7	25.4
계	2,2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별 세대별 휴게실 이용현황 (전체)

	전체	비중	남성	여성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매일	1,131	50.0	54.6	45.4	43.9	46.3	53.3	61.0	74.6
주 1~2 회	478	21.1	19.9	22.4	23.6	24.6	18.4	14.7	8.5
월 1~2 회	98	4.3	4.2	4.5	4.4	5.2	4.0	2.0	5.1
이용 안 한다	554	24.5	21.3	27.8	28.2	23.9	24.2	22.3	11.9
계	2,2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휴게실이 있는 경우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50.0%임. 성별로 보면 남성이 54.6%로 여성(45.4%)보다 높게 나타남. 세대별로는 40대 이상의 경우 절반 이상(40대, 50대, 60대 각각 53.3%, 61.0%, 74.6%)이 매일 이용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20대와 30대 역시 매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43.9%와 46.3%로 다수 이기는 하지만 40대와 50대와 달리 아예 이용 안 한다고 응답한 비중도 28.9%로 높음.

이 조사로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여성과 청년의 휴게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휴게실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임.

탕비실에서 잠깐 쉬고 있으면 자꾸 말을 걸어요. 자기 자랑 늘어놓고. 그래서 이야 기하고 싶은 동료하고 따로 커피숍에 가요. (9, 제조업, 사무직)

탈의실 한 칸에 공간도 협소하고 화장실도 멀어서 여성들은 전부 업무하는 위치에 서 쉬어요. ... 신입들은 탈의실에서 휴식하기에는 눈치 보이고 그럴 거예요. 그래 서인지 자기 차에서 쉬기도 하더라고요. (3795, 제조업, 반숙련직)

업종별 규모별 휴게실 이용현황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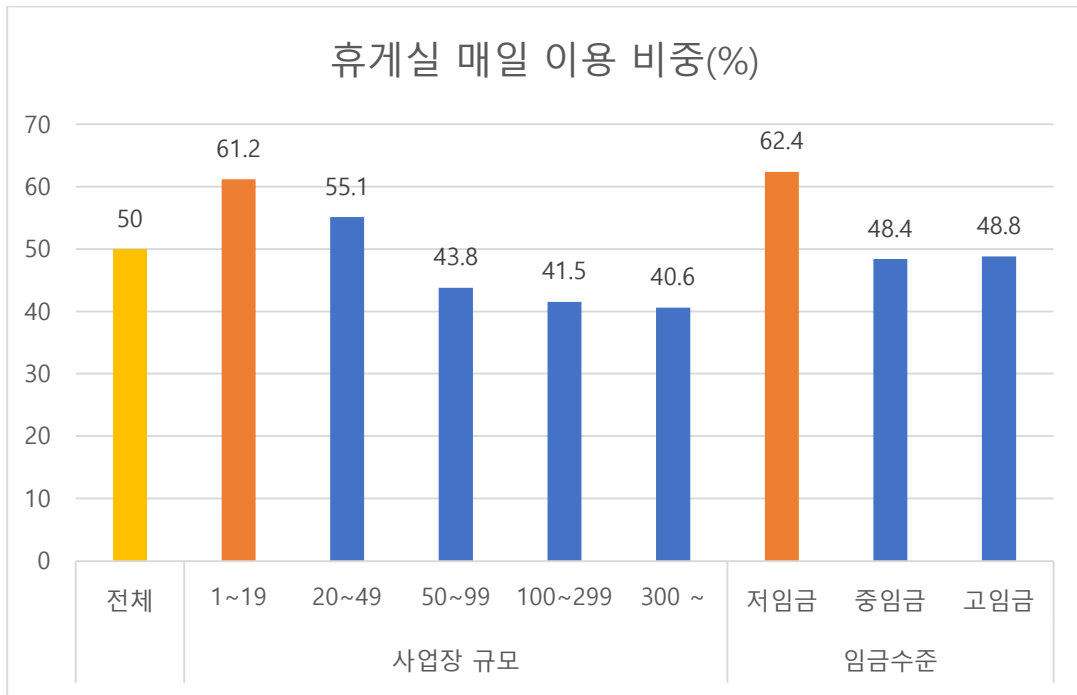
	전체	비중	제조업	비제조업	1~19	20~49	50~99	100~299	300 ~
매일	1,131	50.0	53.5	47.5	61.2	55.1	43.8	41.5	40.6
주 1~2 회	478	21.1	19.4	21.8	19.3	20.0	23.5	22.6	22.0
월 1~2 회	98	4.3	4.0	4.4	3.5	5.2	3.5	4.0	5.6
이용 안 한다	554	24.5	23.1	26.3	16.0	19.6	29.3	31.8	31.8
계	2,2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종별 휴게실 이용현황 (전체)

	전체	비중	생산직	사무판매직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숙련직	반숙련직	단순직
매일	1,131	50.0	63.1	42.8	40.9	42.0	44.0	67.9	58.7	64.4	60.6
주 1~2 회	478	21.1	14.8	24.6	19.2	25.0	41.3	17.0	12.7	13.4	20.0
월 1~2 회	98	4.3	2.9	5.1	6.3	5.0	4.0	0.0	3.2	3.0	2.3
이용 안 한다	554	24.5	19.2	27.4	33.6	28.0	10.7	15.1	25.4	19.1	17.1
계	2,2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금, 노동시간과 휴게실 이용현황 (전체)

	전체	비중	저임금	중임금	고임금	11~35	36~40	41~47	48~52	53~
매일	1,131	50.0	62.4	48.4	48.8	60.2	47.7	47.1	54.0	56.4
주 1~2 회	478	21.1	15.0	22.1	20.7	18.6	24.3	18.2	16.0	19.1
월 1~2 회	98	4.3	3.2	4.4	5.5	6.8	4.3	5.0	4.0	1.6
이용 안 한다	554	24.5	19.4	25.1	25.0	14.4	23.6	29.7	26.1	23.0
계	2,2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단 휴게실이 있으면,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 노동자가, 대기업보다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가, 사무관매직(비생산직)보다는 생산직 노동자가, 고임금 노동자보다는 저임금 노동자가 휴게실을 많이 이용함. 매일 이용 비중이 높은 것.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가 ‘휴게실을 매일 이용한다’는 비중은 40.6%이지만,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실을 매일 이용한다’는 비중은 61.2%로 20%p 이상 차이가 남. 저임금 노동자도 마찬가지. 고임금 노동자의 매일 이용 비중은 48.8%이지만 저임금 노동자는 62.4%임. 식비를 줄이기 위해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으려는 노동자나, 밖에서는 쉴 곳이 마땅히 않은 노동자들 모두 작은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들임. 휴게실의 필요도나 활용도, 모두 저임금·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높고, 그들에게 더 절실함.

공간이 좁지만 돌아가며 이용해요. 쉬는 시간엔 항상 두 명 세 명 정도 이용하고, 점심에는 남들 밖으로 나가면 그 사이 뭘 사와서 먹기도 하고, 밥 먹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휴게실에서 뭘 먹은 나가고, 또 누가 들어오면 이들이 일하러 나가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써요. ... 공용 휴게실이 생기면 거기서 도시락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4115, 제조업, 생산직)

지역별 휴게실 이용하지 않는 이유 (전체)

	전체	비중	경기	경남	경북	광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멀다	44	81	58	179	191	133	11.1	0.0	125	4.0	175	7.9	10.7	6.7
다른 용도로 이용	36	66	38	7.1	0.0	133	3.7	0.0	125	7.6	7.5	10.5	0.0	0.0
낙후되었다	92	169	192	143	19.1	26.7	18.5	16.7	20.8	13.6	22.5	13.2	17.9	33.3
눈치보인다	87	160	135	21.4	19.1	6.7	22.2	0.0	8.3	20.5	7.5	5.3	10.7	13.3

	전체	비중	경기	경남	경북	광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바쁘다	205	37.6	42.3	21.4	23.8	40.0	25.9	83.3	29.2	40.6	32.5	42.1	35.7	40.0
기타 필요없다	27	5.0	3.8	14.3	0.0	0.0	7.4	0.0	4.2	4.4	2.5	13.2	0.0	6.7
내 자리에서 쉰다	17	3.1	1.9	0.0	9.5	0.0	3.7	0.0	4.2	3.6	2.5	2.6	3.6	0.0
다른 사람 이용	21	3.8	3.8	3.6	9.5	0.0	3.7	0.0	4.2	2.0	7.5	2.6	17.9	0.0
다른 곳 이용	8	1.5	1.9	0.0	0.0	0.0	0.0	0.0	0.0	2.0	0.0	2.6	3.6	0.0
폐쇄	8	1.5	3.8	0.0	0.0	0.0	3.7	0.0	4.2	1.6	0.0	0.0	0.0	0.0
계	54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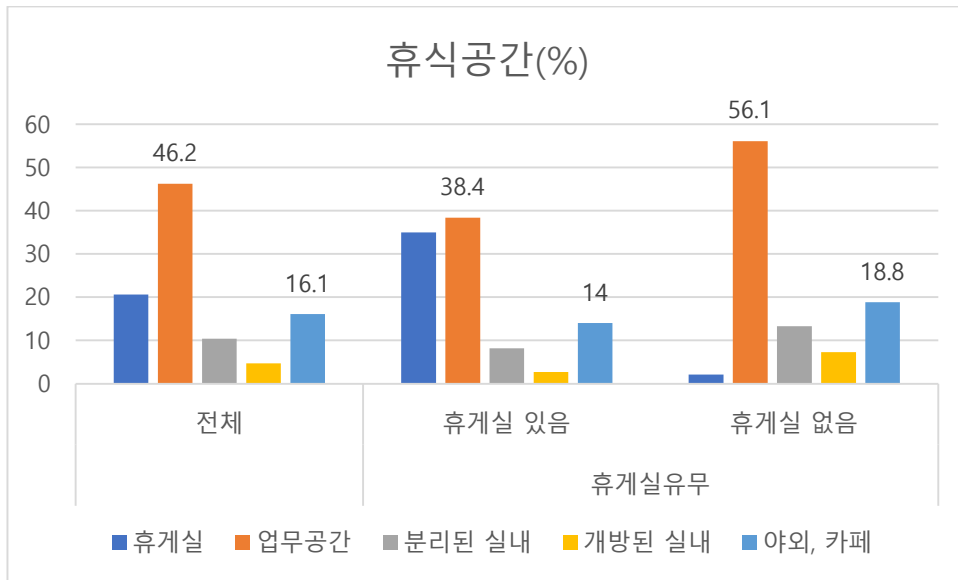
‘휴게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 바쁘다는 이유였음(37.6%). 여유가 없는 것. 시설 노후나 눈치 등 두 번째 요인들은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짐.

5. 오늘,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휴식공간

지역별 휴식공간 (전체)

	전체	비중	경기	경남	경북	광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휴게실	823	20.6	20.0	27.1	22.9	36.0	36.7	20.8	23.1	13.5	22.8	28.7	28.0	25.0
업무공간	1,847	46.2	49.8	44.3	49.5	31.6	30.2	45.8	42.8	50.8	45.0	42.6	40.1	37.5
분리된 실내	417	10.4	11.2	10.9	9.5	10.1	9.1	7.3	13.1	10.2	10.1	13.0	4.5	17.1
개방된 실내	188	4.7	3.3	6.8	4.8	5.0	6.2	8.3	3.9	5.1	3.9	2.8	3.0	3.4
야외, 카페	643	16.1	12.7	8.3	11.4	14.4	15.6	14.6	15.3	19.9	12.7	8.8	18.2	15.9
차량	82	2.0	3.1	2.6	1.9	2.9	2.2	3.1	1.8	0.5	5.5	4.2	6.1	1.1
계	4,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휴게실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는 질문에,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지목한 장소는 ‘자신의 업무공간’임. 46.2%가 자리가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업무와 휴식을 구별하지 못한 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휴게실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6%에 그쳤고, 16.1%는 야외 공터나 카페를 이용하고 있음.



휴게실 유무와 휴식공간 (전체)

	전체	비중	휴게실 있음	휴게실 없음
휴게실	823	20.6	35.0	2.1
업무공간	1,847	46.2	38.4	56.1
분리된 실내	417	10.4	8.2	13.3
개방된 실내	188	4.7	2.7	7.3
야외, 카페	643	16.1	14.0	18.8
차량	82	2.0	1.7	2.5
계	4,000	100.0	100.0	100.0

업무공간에서 쉬거나 야외에서 쉬는 비중이 높은 건 휴게실이 없어서 임. 실제로 휴게실이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휴게실에서 쉬거나 업무공간에서 쉬는 노동자 비중이 각각 35.0%, 38.4%로 비슷한 반면, 휴게실이 없는 노동자들의 경우 56.1%가 업무공간에서 쉬고 있고, 18.8%는 야외 공터나 카페를 이용하고 있음.

업종별, 규모별 휴식공간 (전체)

	전체	비중	제조업	비제조업	1~19	20~49	50~99	100~299	300 ~
휴게실	823	20.6	25.9	16.6	17.9	22.5	19.3	19.9	26.5
업무공간	1,847	46.2	40.2	50.4	50.0	44.7	44.9	44.6	41.5
분리된 실내	417	10.4	10.7	10.1	10.9	9.0	9.5	11.5	10.9
개방된 실내	188	4.7	5.2	4.4	5.1	4.9	4.2	4.8	3.6
야외, 카페	643	16.1	15.8	16.6	14.2	16.9	19.9	16.6	15.4
차량	82	2.0	2.3	1.9	1.9	1.9	2.2	2.5	2.1
계	4,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종별 휴식공간 (전체)

	전체	비중	생산직	사무판매직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숙련직	반숙련직	단순직
휴게실	823	20.6	36.1	14.2	11.2	15.1	16.3	20.5	25.6	37.2	37.8
업무공간	1,847	46.2	29.0	53.2	55.2	53.9	44.3	51.3	31.4	28.5	29.3
분리된 실내	417	10.4	11.1	10.1	9.2	10.0	12.7	12.0	6.6	12.3	9.6
개방된 실내	188	4.7	5.7	4.3	3.9	4.3	5.5	3.4	8.3	5.3	5.8
야외, 카페	643	16.1	14.6	16.7	19.0	15.3	19.9	8.6	25.6	13.3	13.1
차량	82	2.0	3.4	1.5	1.3	1.4	1.3	4.3	2.5	3.3	4.2
계	4,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휴게실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낮은만큼,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업무공간에서 쉬다고 응답한 노동자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음. 20인 미만 사업장의 50.0%는 업무공간에서 쉬고 있음. 마찬가지로 휴게실이 부족한 사무·전문직에서 업무공간에서 그냥 쉬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54.4%임. 판매서비스직도 46.4%가 업무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반대로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가 많은 생산직(특히 반숙련직과 단순직)은, 지극히 당연하겠지만, 업무공간보다는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응답자가 많음. 사무·전문직보다 높는데 반숙련직은 37.2%가, 단순직은 37.8%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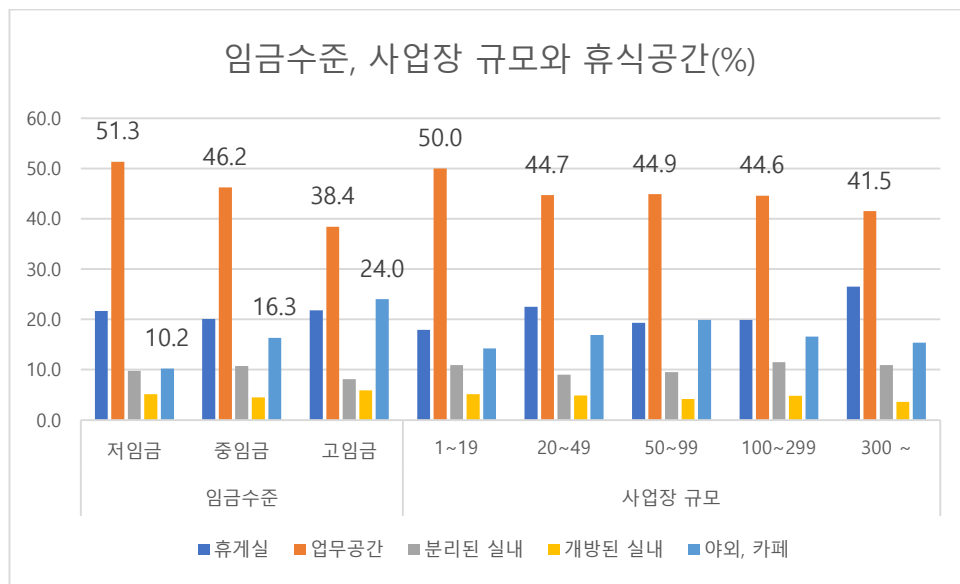
성별, 세대별 휴식공간 (전체)

	전체	비중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휴게실	823	20.6	26.2	15.8	18.8	19.5	19.8	26.9	32.7
업무공간	1,847	46.2	35.5	55.3	50.1	47.4	44.2	41.3	35.6
분리된 실내	417	10.4	8.8	11.8	10.8	11.1	9.6	8.8	13.5
개방된 실내	188	4.7	4.7	4.7	3.9	4.7	5.3	5.2	3.8
야외, 카페	643	16.1	21.9	11.1	14.8	16.2	17.7	15.3	11.5
차량	82	2.0	2.8	1.4	1.7	1.1	3.3	2.5	2.9
계	4,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휴게실 유무와 관계없이 성별·세대별 휴식공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 보면 업무공간에서 쉬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35.5%)에 비해 여성(55.3%)이 훨씬 높아. 남성의 경우 휴게실(26.2%)이나 야외 공간(21.9%)에서 휴식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중이 여성보다 더 높음. 반대로 여성은 업무공간(자기 자리)에서 쉬다고 응답한 비중이 55.3%.

세대별로 보면, 성별만큼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20대, 30대는 업무공간(자기 자리)에서 쉬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고, 50대와 60대는 휴게실에서 쉬다고 응답한 비중보다 10%p가량 더 높게 나타남.

	전체	비중	저임금	중임금	고임금	11~35	36~40	41~47	48~52	53~
휴게실	823	20.6	21.7	20.1	21.8	17.8	19.7	18.4	25.3	22.3
업무공간	1,847	46.2	51.3	46.2	38.4	56.8	48.9	45.8	38.3	35.5
분리된 실내	417	10.4	9.8	10.7	8.1	8.7	9.7	12.0	11.2	12.3
개방된 실내	188	4.7	5.1	4.5	5.9	4.9	3.8	6.8	4.6	8.0
야외, 카페	643	16.1	10.2	16.3	24.0	9.5	16.3	15.6	17.2	19.1
차량	82	2.0	1.8	2.1	1.8	2.3	1.7	1.3	3.3	2.8
계	4,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임금수준에 따라 실제로 쉬고 있는 휴식공간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남. 작은 사업장의 휴게공간이 부족한 만큼 저임금 노동자의 휴게 공간이 부족할 텐데, 이를 감안해도 저임금 노동자나 고임금 노동자의 휴게실 사용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남.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휴게실 이용빈도가 높은 것과 관련 있는데, 휴게실이 있기만 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

반대로 고임금 노동자들은 다른 공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야외, 카페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비율이 저임금 노동자보다는 높은 것. 저임금 노동자들은 10.2%에 불과한 데 반해, 고임금 노동자들은 24.0%가 야외, 카페 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다른 휴게공간을 찾지 못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업무공간(자기자리)에서 대기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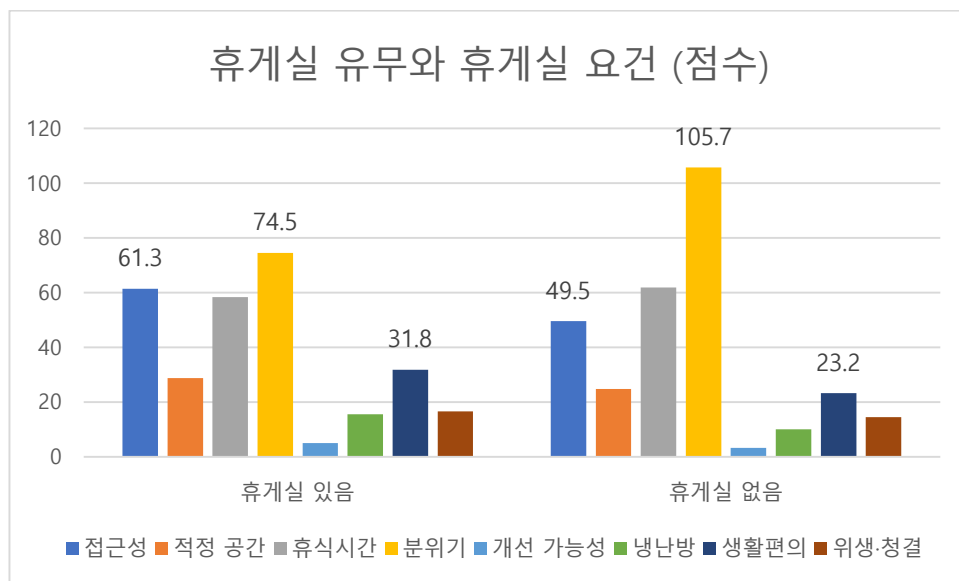
휴게실이 부족할수록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 직접적임. 이들에겐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이 구별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6. 휴게실 요건

	접근성	적정공간	휴식시간	분위기	개선 가능성	냉난방	생활편의	위생청결
전체	56.0	27.0	59.8	88.3	4.2	13.1	28.1	15.6
경기	57.7	23.2	63.9	85.8	5.8	9.3	31.9	15.0
경남	56.5	28.8	65.8	62.0	4.9	24.5	25.5	16.8
경북	55.2	24.8	74.3	93.3	4.8	10.5	23.8	7.6
광전	71.2	28.1	58.3	65.5	10.1	28.1	16.5	16.5
대구	62.8	26.3	51.5	72.6	5.1	21.5	39.4	12.8
대전	63.4	23.7	55.9	97.8	5.4	11.8	21.5	8.6
부산	53.5	22.1	60.2	80.1	6.2	18.1	26.5	21.2
서울	50.1	27.1	60.2	103.2	2.7	8.0	26.7	15.9
인천	61.7	36.6	58.4	66.7	5.3	16.2	29.7	14.5
전북	61.2	30.4	53.7	70.1	3.3	21.0	33.6	14.5
충남	69.8	22.5	57.4	72.9	0.8	20.9	29.5	18.6
충북	60.9	27.6	54.0	92.0	6.9	11.5	20.7	23.0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휴게실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눈치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임. 1순위에 200점, 2순위에 100점 가산해 평균을 내보면, ‘쉴 수 있는 분위기’가 88.3점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런 현상은 서울산단에서 특히 더 두드러짐.

두번째로 중요하다고 손꼽힌 것은 휴식시간이고(59.8점) 세번째가 접근성, 가까운 거리임(56.0점) 휴식 시간과 거리는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건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하게 높음.



휴게실 유무와 휴게실 요건 (전체)

	접근성	적정 공간	휴식시간	분위기	개선 가능성	냉난방	생활편의	위생·청결
전체	56.1	26.9	59.9	88.2	4.2	13.1	28.1	15.7
휴게실 있음	61.3	28.7	58.3	74.5	5.0	15.5	31.8	16.6
휴게실 없음	49.5	24.7	61.8	105.7	3.2	10.0	23.2	14.5

휴게실 요건에서 극적으로 평가가 갈리는 것은 ‘휴게실이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한 노동자들 사이임. ‘휴게실이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긴 하지만(74.5점), ‘휴게실이 없다’는 노동자의 평가(105.7점)만큼은 아님. 대신 접근성과 거리 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61.3점), 냉장고, 정수기, 안마기 등 생활편의 시설 등이 ‘휴게실이 없다’는 노동자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휴게실이 있는 노동자에게는 ‘쉴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한 선택지가 상당히 줄어들는데, 이는 휴게실의 존재 자체가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는 요인임을 시사.

성별, 세대별 휴게실 요건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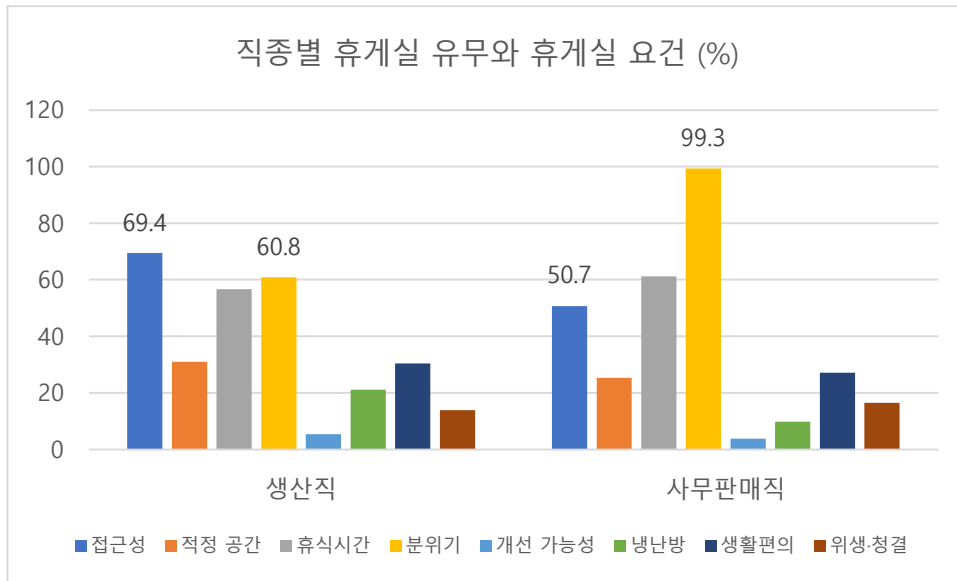
	접근성	적정 공간	휴식시간	분위기	개선 가능성	냉난방	생활편의	위생·청결
전체	56.1	26.9	59.9	88.2	4.2	13.1	28.1	15.7
남성	68.6	31.1	55.9	72.2	5.9	13.1	29.1	14.9
여성	45.6	23.4	63.2	101.8	2.8	13.1	27.2	16.3
20 대	50.7	22.2	62.7	103.9	2.3	8.4	26.8	17.8
30 대	55.3	29.6	58.8	91.5	5.5	12.5	25.5	15.6
40 대	62.5	26.9	59.4	81.5	4.4	14.4	27.7	12.6
50 대	55.6	25.3	57.9	70.8	3.6	17.5	37.6	20.5
60 대	50.0	36.0	64.0	51.0	4.0	29.0	40.0	10.0

앞서 살펴봤듯 남녀 사이에는 휴게실 이용·활용도가 달랐는데, 휴게실 요건에 대한 이해도 다른 것으로 나타남. 여성은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에 매우 높은 의미(101.8 점)를 부여한 반면, 남성은 해당 비중이 낮고(72.2점) 대신 접근성, 거리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세대별로도 차이가 확인됨. 20~30대는 다른 무엇보다도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40~50대는 접근성과 거리, 휴식시간 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도 중요하게 보고 있음.

직종별 휴게실 요건 (전체)

	접근성	적정 공간	휴식시간	분위기	개선 가능성	냉난방	생활편의	위생·청결
전체	56.1	26.9	59.9	88.2	4.2	13.1	28.1	15.7
생산직	69.4	30.9	56.6	60.8	5.3	21.1	30.4	13.8
사무판매직	50.7	25.3	61.2	99.3	3.8	9.8	27.1	16.4
전문직	45.5	25.2	58.7	105.3	3.1	7.4	30.7	19.0

	접근성	적정 공간	휴식시간	분위기	개선 가능성	냉난방	생활편의	위생청결
사무직	49.1	25.0	60.2	100.7	3.3	10.6	27.4	16.6
판매직	66.1	28.9	71.1	81.6	8.2	9.2	18.1	11.2
서비스직	70.9	21.4	67.5	82.1	2.6	19.7	19.7	7.7
숙련직	67.5	18.3	56.7	60.8	5.8	18.3	45.8	16.7
반숙련직	66.8	34.3	56.3	61.5	5.6	21.8	27.4	14.8
단순직	78.0	26.3	57.6	58.8	4.3	20.4	32.2	9.8



휴게실 요건에 대해서는 직군 별로 차이가 더 뚜렷해. 사무판매직(비생산직)이나 사무직은 쉴 수 있는 분위기에 많은 의미부여(99.3점)를 하고 접근성·거리(50.7점)보다는 휴식시간(61.2점)을 더 중요하게 본 반면, 생산직군은 오히려 접근성과 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69.4점) 쉴 수 있는 분위기(60.8점)와 휴식시간(56.6점)을 비슷한 정도로 보고 있음.

“이제 휴식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회사도 있고, 그런 직종도 있을 텐데 없는 회사도 많아요. 자기가 짬을 내서 쉬어야 하는데, 같은 5분을 쉬어도 ‘재네 아직 도 쉬고 있네’ 눈총 받을 거 같으면 못 쉬어요.” (4442, 정보통신, 사무직)

“휴게실이라는 게 저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한 공간을 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서로 눈치 보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해요. 좋은 시설보다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중요해요.(2039, 정보통신, 전문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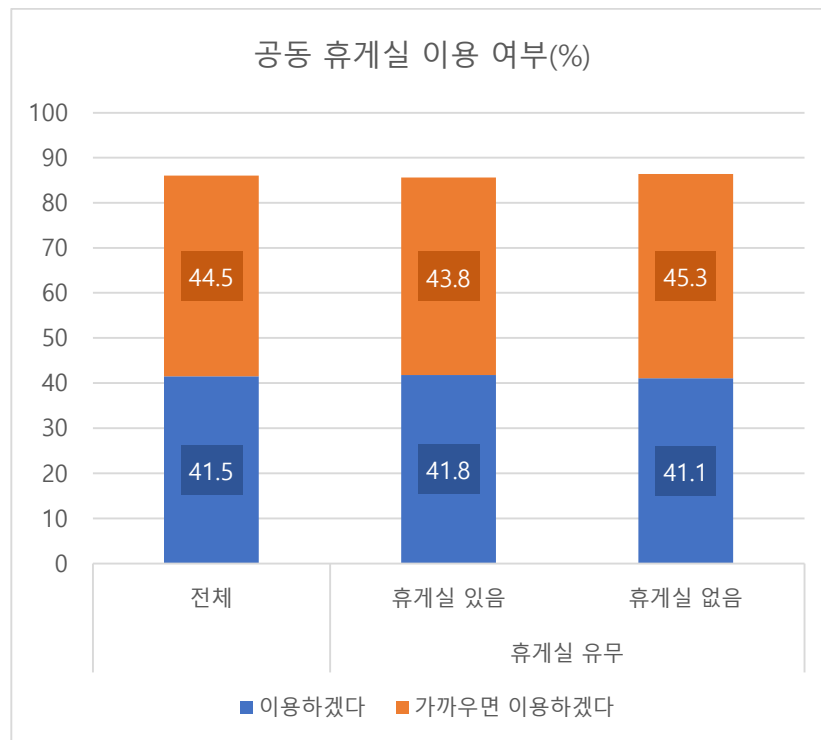
“작업장에서 일하는 공간하고 휴게공간 이동거리가 너무 멀면 소용 없어요. 쉬는 시간이 보통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 이렇게 쉬잖아요. 멀면 이동하는 사이 휴

계시간이 없어서 버려요.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려면 가까워야 됩니다.”
 (1583, 제조업, 생산직)

7. “공동 휴게실 이용하겠다”

	전체	비중	경기	경남	경북	광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이용하겠다	1,669	41.5	41.5	42.7	42.5	42.7	35.0	50.0	39.7	41.1	41.0	44.0	43.2	53.4
가까우면 이용하겠다	1,788	44.5	45.2	37.5	50.0	37.8	38.6	35.4	41.9	47.1	48.2	43.1	41.7	37.5
이용 안 한다	564	14.0	13.3	19.8	7.5	19.6	26.4	14.6	18.3	11.8	10.8	12.8	15.2	9.1
계	4,0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비중	휴게실 있음	휴게실 없음
이용하겠다	1,669	41.5	41.8	41.1
가까우면 이용하겠다	1,788	44.5	43.8	45.3
이용 안 한다	564	14.0	14.4	13.5
계	4,021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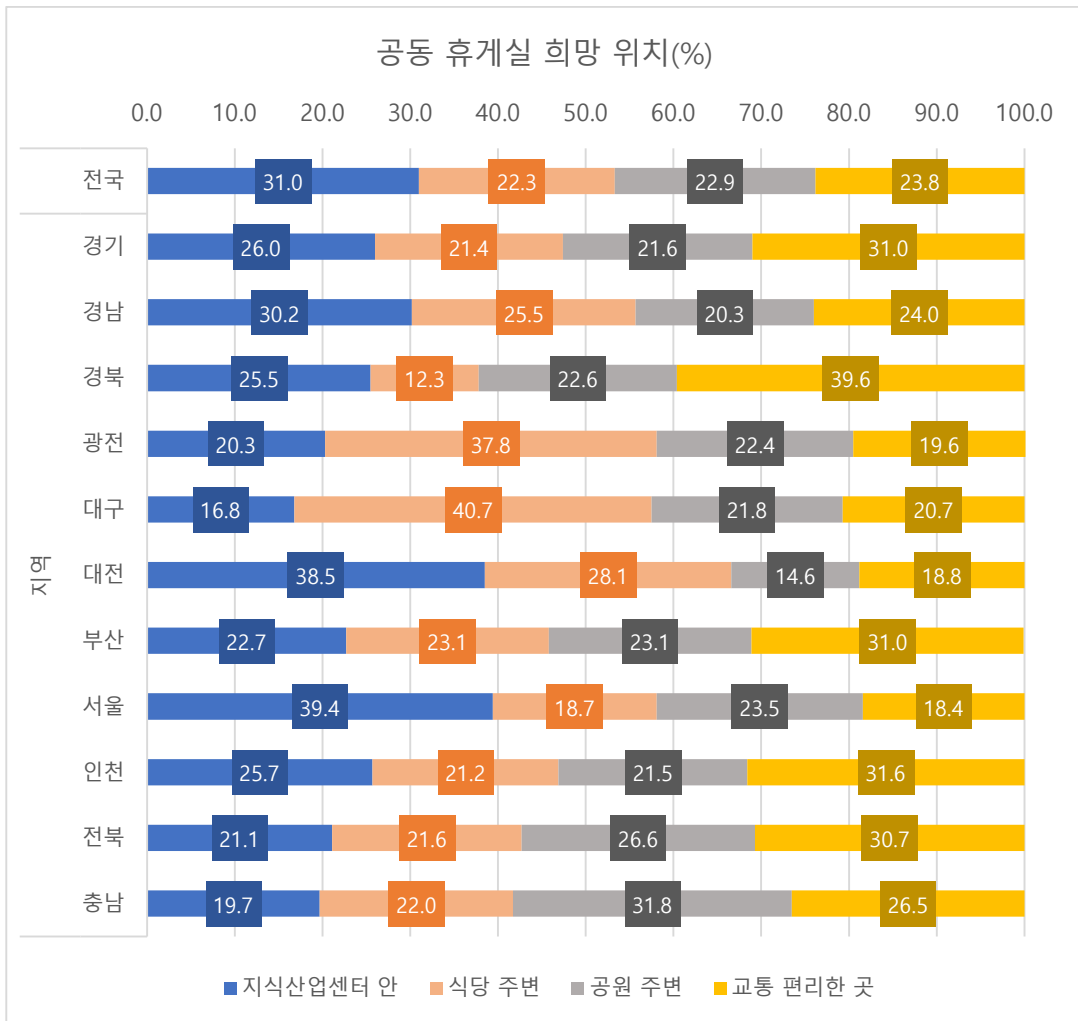


공동휴게실이 생기면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매우 높게 나타남. 86.0%나 됨. 주목할 것은 회사에 휴

계실이 있는 노동자나, 휴게실이 없는 노동자나 모두 이용할 의사가 높다는 것.

별도의 휴게실이 없어요 탈의실이 있지만 캐비닛만 들어갈 정도로 협소하고요. ... 공장 주변에 편의점이 없어요. 좀 나가야 해요. 커피 한잔 먹으려 해도 점심시간밖에 못 나가요. 그런데 공동 휴게실하고 편의점, 커피숍이 같이 있고, 공동 의자 벤치도 있으면 쉬고 오고 좋죠. 밥 먹고 쉴 때도 더 편하게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죠. (3859, 제조업, 생산직)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 있는데도 공동 휴게실을 이용하겠어요?) 신입 때를 생각해 보면 공동 휴게실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저야 회사 오래 다녔으니까 회사 휴게실 쓰는데 눈치 안 보는데, 신입이라면 거리만 가까우면 공동 휴게실 사용할 거거든요. 눈치도 덜 보고 거기서 잠깐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4443, 정보통신, 사무직)



	전체	비중	경기	경남	경북	광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지식산업센터 안	1,246	31.0	26.0	30.2	25.5	20.3	16.8	38.5	22.7	39.4	25.7	21.1	19.7	36.4
식당 주변	896	22.3	21.4	25.5	12.3	37.8	40.7	28.1	23.1	18.7	21.2	21.6	22.0	17.1
공원 주변	923	22.9	21.6	20.3	22.6	22.4	21.8	14.6	23.1	23.5	21.5	26.6	31.8	26.1
교통 편리한 곳	956	23.8	31.0	24.0	39.6	19.6	20.7	18.8	31.0	18.4	31.6	30.7	26.5	20.4
계	4,0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동 휴게실 위치에 대해서는 어디든 이용하겠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31.0%로 우세하긴 하지만, 서울의 표본이 많아서 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산단에 서 응답한 노동자들은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높다. 39.4%) ‘식당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 ‘공원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으면 좋겠다’ 모두 22% 이상 지지를 얻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층마다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건물이 높아요. 바람 한번 쏘려고 하면 1층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엘리베이터 전쟁을 해야 해요. (2039, 정보통신, 전문직)

공원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농공단지 근처에 있는데 제대로 된 공원이 없어요. 공원도 생기고, 거기에 공동 휴게실도 생기고 하면,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며 걸어 다닐 수 있어요. (3795, 제조업, 생산직)

자주 가는 식당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회사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밥 빨리 먹고 나와서 최대한 오래 쉬고 싶어요.. (4117, 제조업, 사무직)

교통이 편리한 곳, 지하철역 같은 곳에 있으면 이용할 의사가 있어요.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생기면 지금 저희 회사 시설보다 더 좋지 않을까요? 또 다른 회사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4396, 도소매업, 사무직)

8. 결론 및 제언

전국 12개 산업단지에서 진행된 휴게실 및 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 사실을 확인함.

첫째, 4,036명의 산업단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중 43.8%에게서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8.2%가 휴게실이 없고,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에서는 40.6%(1~49인,

40.0%)인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휴게실이 없는 노동자 중 일부는 야외, 카페 등으로 나가 쉬기도 하지만 대부분(56.1%) 업무공간에서 ‘눈치를 보며’ 짬을 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휴게실이 부족할수록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남. 휴게실의 이용 빈도는 고임금 노동자보다는 저임금 노동자가 더 높음. 저임금 노동자에게 휴게실은 노동에 지친 육체와 정신을 쉬게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식비를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먹는 공간이기도 하며, 커피값을 아끼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 그런데 이들 저임금 노동자들은 휴게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고임금 노동자들은 외부공간, 카페 등에서 휴식을 취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자신의 업무공간에서 대기할 뿐임.

아이러니하게도 휴게실 의무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는 정작 휴게실 활용도도 높고, 누구보다 휴게실이 절실한 이들 저임금·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음.

셋째, 기존 휴게실도 좁은 공간, 부족한 개수, 파견 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 개선해야 할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인원 대비 면적’에 대해서도 44.9% 만이 좁지 않다고 대답해 기존 휴게실이 좁다는 의견이 많았고, ‘규모 대비 휴게실 개수’도 넉넉한 지에 대해 겨우 과반을 넘는 이들(50.9%)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중 일부를 무작위로 뽑아 심층 면접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휴게실의 열악한 실상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음. 휴게실 사용에 대한 파견노동자 차별 문제도 심층 면접조사 과정에서 확인됨.

넷째, 휴게실 요건으로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은 ‘설 수 있는 분위기’임. ‘설 수 있는 분위기’란 관리자나 상사, 선임·후임의 눈치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물질적 여건이 충족시키는 사업장 내 분위기일 수도 있음.

이번 조사에서 ‘설 수 있는 분위기’라는 요건이 휴게실이 있는 노동자에게서는 크게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휴게실의 존재 자체가 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할 수 있음. 독립된 공간에 마련된 휴게실은 그 자체로 눈치를 덜 봐도 되는 분위기를 마련함. 휴게실 자체가 ‘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다섯째, 공동 휴게실은 휴게실 부족, 부족한 시설 등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공동 휴게실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았던 것. 중요한 것은 공동 휴게실에 대해 사내 휴게실이 있는 노동자나, 휴게실이 없는 노동자나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임. 공간이 좁은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의 휴게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내 휴게실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사업장에서의 휴게실 문제 해법으로도 해법이 될 수 있는 것.¹

¹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공동 휴게실을 입주자 커뮤니티 사업의 일환으로, 빠른 분양과 원활한 임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음.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은 상당부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섯째, 휴게실 설치에 전지 행정에서 그치지 않고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실질화 되려면, 휴게실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사간 협의 테이블이 필요함. 특히 공동 휴게실의 경우 복수의 사용자와 복수의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방치될 수 있음.

“생산직 쪽에는 휴게실(겸 탈의실)이 있지만, 사무직 쪽은 휴게실이 없어요. 여러 기업들이 같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있는데, 공용으로 쓰는 그런 휴게공간이 있어요. 쉬려고 한번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 있는 의자들이 다 부서져 있어서 그만 됐어요. 관리를 따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2627, 제조업 전문직)

또 공동 휴게실은 산업단지 내 다른 공동사업과 연계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음. 매점·편의점, 작업복 세탁소, 심리상담센터, 근로자건강센터 분소 등. 지자체와 노사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면 휴게실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장의 열악한 복지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음.

“여기 산업단지에서, 항상 좀 아쉬웠던 게 편의점이 없어요. 편의점 가려면 왕복 3~40분이 걸려요. 공동휴게실이라면, 매점이나 편의점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중략) 점심 식사하고 편의점 들리는 분들도 은근 있잖아요. 어딘가에 앉아서 쉬고 할

	
	<p>이 사진들은 서울 A, 서울 B, 인천 C 지식산업센터에 조성된 공동휴게실이다. 부동산과 관리사무소의 직원 말에 따르면 공용 휴게공간은 시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거고 자자체로부터 특혜나 그런 건 없었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공용부분이라고 했다. 지금은 코로나때문에 휴게실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더 좋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지식산업센터도 많으며 요즘은 이게 '트렌드'라고까지 했다.</p>

수 있는 공간에, 매점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쉬는 나름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봤어요.” (345, 제조업 전문직)

휴게실 의무화와 함께 진행될 정부의 휴게실 지원 사업은, 작은 사업장을 위한 ‘공동 휴게실’을 곳곳에 만들고 이를 노사정이 공동으로 운영, 관리,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지식산업센터처럼 대규모 집적 시설에는 층마다 공동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업단지 식당 주변, 공원 주변 등 여러 곳을 선정해 지자체와 산업단지관리공단, 사용자 단체(예컨대 입주 기업체 대표자협의회)와 노동조합이 공동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논의를 개시해야 함.

원청 대기업과 지역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공동휴게실은 원청·대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는데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작은 사업장의 ‘산업안전관리자’ 운영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보론> 산업단지 노동자의 복지 환경과 요구

1. 임금명세서 교부 실태

지역별 임금명세서 교부 현황 (전체)

	전체	비중	경기	경남	경북	광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교부	3,258	81.0	80.1	84.4	75.5	76.2	78.2	78.1	78.6	82.8	80.8	83.5	78.0	80.7
보기만 함	470	11.7	12.7	6.8	16.0	12.6	12.1	14.6	13.1	11.4	11.4	7.8	15.2	11.4
본 적 없음	293	7.3	7.2	8.8	8.5	11.2	9.6	7.3	8.3	5.8	7.8	8.7	6.8	8.0
계	4,0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업종별 규모별 임금명세서 교부 현황 (전체)

	전체	비중	제조업	비제조업	1~19	20~49	50~99	100~299	300 ~
교부	3,258	81.0	83.8	79.1	73.2	85.5	85.6	84.6	86.2
보기만 함	470	11.7	10.1	12.6	13.4	10.0	10.6	11.7	10.8
본 적 없음	293	7.3	6.1	8.3	13.4	4.6	3.8	3.7	3.0
계	4,0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21년 11월 19일부터 교부가 의무화된 임금명세서는 19.0%가 교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본 적도 없다는 비중이 7.3%임. 특히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6.8%가 교부 받지 못했고, 13.4%는 본 적도 없음.

2. 복지제도 실태와 희망하는 복지

지역별 복지실태 (전체)

	식비	교통비	휴게실	통근버스	사내식당	교육	육아	건강검진	의료실	여름휴가
전체	71.2	27.9	54.0	18.0	37.3	27.6	16.4	60.5	12.2	45.8
경기	68.6	32.5	54.4	28.4	50.4	28.8	22.7	64.0	16.6	48.9
경남	71.9	35.4	62.0	35.4	62.0	25.0	23.4	59.9	26.0	56.8
경북	67.9	44.3	57.5	40.6	62.3	34.0	26.4	62.3	19.8	53.8
광전	74.1	37.1	60.8	30.8	46.2	21.0	14.7	61.5	16.1	54.5
대구	79.6	26.1	61.8	23.6	45.4	13.6	11.4	56.1	10.7	58.6
대전	80.2	26.0	50.0	15.6	43.8	33.3	20.8	58.3	14.6	43.8
부산	79.0	38.4	56.8	31.0	41.5	27.9	20.1	65.9	12.7	48.0
서울	68.1	21.8	47.8	6.4	21.9	29.7	12.6	57.4	8.3	40.9

	식비	교통비	휴게실	통근버스	사내식당	교육	육아	건강검진	의료실	여름휴가
인천	70.7	23.5	53.7	17.3	45.9	22.5	15.0	62.9	16.9	39.4
전북	76.1	34.9	65.6	23.4	43.6	29.8	17.4	77.1	10.6	45.9
충남	72.0	34.1	65.9	37.1	56.1	30.3	21.2	59.8	12.1	48.5
충북	78.4	42.0	68.2	19.3	59.1	33.0	30.7	56.8	11.4	54.5

산업단지 노동자의 71.2%가 식비를 지원받고 있고, 60.5%는 건강검진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름유급휴가를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45.8%임.

지역별 복지 희망 (전체)

	식비	교통비	휴게실	통근버스	사내식당	교육	육아	건강검진	의료실	여름휴가
전체	65.2	53.2	20.1	9.6	15.2	27.0	20.0	19.5	4.7	53.5
경기	61.1	53.2	19.2	11.3	13.3	29.2	23.5	21.0	7.0	51.4
경남	47.2	55.1	22.7	5.7	8.5	29.0	33.0	24.4	5.1	51.7
경북	68.3	62.4	18.8	5.9	9.9	21.8	40.6	12.9	7.9	41.6
광전	58.0	52.9	26.8	7.2	23.9	23.9	15.9	27.5	10.9	44.9
대구	38.4	57.2	26.6	12.2	12.2	24.0	26.6	33.6	8.1	49.1
대전	57.8	52.2	21.1	14.4	16.7	23.3	31.1	18.9	1.1	51.1
부산	60.8	51.8	14.4	9.5	12.6	32.9	29.7	17.6	4.5	52.3
서울	79.5	49.1	17.7	7.3	17.1	27.2	15.0	18.4	3.0	54.6
인천	59.8	61.4	27.8	8.2	11.8	27.1	12.7	12.1	4.2	59.8
전북	41.7	59.7	21.8	15.5	17.0	25.2	18.9	10.2	6.3	62.6
충남	59.4	60.9	15.6	16.4	12.5	21.9	19.5	19.5	1.6	57.8
충북	34.5	58.6	26.4	27.6	21.8	28.7	26.4	26.4	6.9	41.4

71.2%가 식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1순위를 200점, 2순위를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식비 지원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65.2점임. 두번째로 높은 점수는 여름유급휴가로 53.5점임. 식비 지원 요구가 높은 것은, 식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10만원이 세금공제를 위한 금액이지 식비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다 점심 값 자체가 (저임금의)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

“지하 구내식당 비용도 은근히 비싸요. 5,500원인데 이것도 적지 않죠. 이거라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2039, 전문직)

“수천만원 연봉을 줘도, 식비를 준다, 안 준다는 차이가 있어요. 식비를 준다는 거는 연봉을 올려줬다기 보다는 복지가 추가되었다는 인식을 줘요. 사원 모집 공고를 보면 사내 복지로 사내 식당/식비 지원, 이렇게 명문화하거든요. 식비는 복지여야 해요. 밥은 먹으면서 일해야 하니까요.” (4443, 사무직)

“여기가 첫 회사예요. 다른 친구들 보니까 여름 휴가가 유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저만 여름 유급 휴가가 없는 거예요.” (2627, 전문직)

성별, 세대별 복지 희망 (전체)

	식비	교통비	휴게실	통근버스	사내식당	교육	육아	건강검진	의료실	여름휴가
전체	65.1	53.1	20.1	9.5	15.3	27.2	19.9	19.6	4.7	53.7
남성	54.6	54.8	19.8	12.2	14.6	30.1	23.9	18.9	7.0	49.8
여성	73.8	51.7	20.4	7.3	15.8	24.7	16.6	20.1	2.7	56.9
20대	76.6	56.9	16.7	11.7	14.1	24.5	7.2	13.1	3.4	67.9
30대	71.6	50.7	20.5	8.8	16.5	25.7	27.3	16.5	3.7	50.5
40대	55.4	50.7	18.6	9.4	15.0	32.1	26.1	22.1	6.2	46.6
50대	48.8	58.2	26.6	8.9	14.0	27.6	8.9	32.5	5.6	52.1
60대	39.8	59.2	32.7	5.1	15.3	17.3	6.1	39.8	10.2	56.1

업종별, 규모별 복지 희망 (전체)

	식비	교통비	휴게실	통근버스	사내식당	교육	육아	건강검진	의료실	여름휴가
전체	64.5	52.6	20.1	9.6	15.2	27.4	20.0	19.7	4.7	54.1
제조업	46.1	55.5	21.7	12.8	13.3	31.5	25.1	20.4	6.6	54.0
비제조업	79.1	50.4	18.8	7.0	16.8	24.1	16.0	19.2	3.1	54.1
1~19	72.9	60.4	19.0	5.8	12.4	24.5	17.2	24.1	2.4	49.9
20~49	65.7	48.5	20.6	10.8	16.0	27.1	20.4	19.3	4.2	55.9
50~99	63.6	48.6	20.6	10.7	16.5	26.3	21.6	16.7	5.4	56.3
100~299	60.6	49.4	22.8	12.7	17.3	31.6	19.4	13.1	7.4	54.2
300 ~	49.7	49.9	18.6	12.0	18.2	30.4	25.1	18.2	7.5	57.4

식비 요구는 남성(54.6점)보다는 여성(73.8점)에게서, 40대와 50대보다는 20대(76.6점)와 30대(71.6점)에게서 더 큼. 제조업(46.1점)보다는 비제조업(79.1점)에서, 대기업보다는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78.9점)에서 더 높음.

	식비	교통비	휴게실	통근버스	사내식당	교육	육아	건강검진	의료실	여름휴가
전체	65.1	53.1	20.1	9.5	15.3	27.2	19.9	19.6	4.7	53.7
정규직	61.2	53.3	19.8	9.6	16.0	29.0	21.9	19.1	5.0	52.9
비정규직	79.2	52.4	21.2	9.2	12.5	20.2	12.8	21.2	3.3	56.3
1년 미만	77.5	56.6	15.0	7.4	12.9	21.3	11.7	18.2	2.4	63.1
2년 미만	73.0	50.4	20.1	11.0	17.1	24.6	14.8	18.8	2.0	57.9
5년 미만	63.4	56.2	20.4	10.5	16.3	30.8	20.3	16.8	5.2	51.4
10년 미만	58.8	49.3	21.6	8.7	16.1	30.0	28.7	19.6	5.1	50.1
10년 이상	49.8	47.7	24.6	9.7	14.4	29.7	27.8	27.8	9.4	43.5

임금, 노동시간과 복지 희망 (전체)

	식비	교통비	휴게실	통근버스	사내식당	교육	육아	건강검진	의료실	여름휴가
전체	65.3	53.2	20.0	9.5	15.3	26.9	19.9	19.6	4.5	53.8
저임금	85.6	62.5	17.1	9.4	10.6	16.5	13.3	16.9	2.1	55.4
중임금	64.2	52.3	20.6	9.7	16.1	27.6	20.2	19.1	4.5	53.8
고임금	40.8	47.7	17.7	7.3	14.2	37.7	28.1	30.4	9.6	50.4
11~35	90.4	60.9	10.7	6.9	9.2	19.5	13.4	29.5	0.8	46.0
36~40	69.5	52.3	20.7	9.1	15.4	25.4	18.1	18.2	4.2	55.5
41~47	63.5	51.3	20.3	8.5	16.4	31.0	20.5	19.0	1.9	55.8
48~52	44.8	54.9	20.1	11.6	16.0	30.9	27.4	21.6	9.7	50.3
53~	61.4	50.6	24.5	12.4	15.8	30.7	19.9	15.8	5.0	51.5

근속이 짧을수록(1년 미만 77.5점) 저임금 노동자일수록(85.6점) 식비에 대한 지원 요구가 큼. 중임금 노동자도 64.2점으로 복지 요구 중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중임금이나 고임금 노동자들에게서 교육, 육아, 건강검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식비부터 개선해달라는 것.

<참고자료 1> 2022 휴게실·복지 실태조사 개요 및 응답자의 특성

1. 조사목적

- 2022년 8월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휴게실 유무 및 휴게실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
- 산업단지 노동자의 휴게실 이용 실태 및 휴식 형태를 분석, 산업단지 노동자의 휴게실 요구안 마련
- 휴게실 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비, 교육비, 여름 휴가 등 산업단지 노동자의 복지 수준과 복지 요구 확인

2. 개요

○ 조사 방법 : 편의추출조사

-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3개 지역 산업단지 일대에서 거리 설문 조사 및 온라인 설문 조사

○ 조사 기간 : 3.23 ~ 4.30

○ 조사 항목

- 인구학적 특성 : 성, 생년
- 노동시장 특성 : 근무지(지역), 업종(중분류), 직종(대분류), 사업장 규모, 근속, 고용형태, 노조
- 노동조건 특성 : 임금, 노동시간, 휴게시간
- 복지실태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식비, 교통비, 교육비, 여름유급휴가 등
- 휴게실 실태 : 휴게실 현황, 상태, 이용, 휴식공간, 휴게실 요건
- 복지 및 휴게실 희망

○ 응답자 : 4,443명

- 온라인 응답자 : 3,644명
- 거리 응답자 : 377명

3. 응답자 특성

4,443명의 응답자 중 중복 응답자, 자영업자, 그리고 결측 값이 많은 응답자를 제외한 4,021명을 대상으로 분석.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세대별), 노동시장 특성(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근속, 고용형태), 노동조건 특성(임금, 노동시간,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음.

인구학적 특성

		전체	비중			전체	비중
지역	경기	458	11.4	성별	남성	1,847	45.9
	경남	192	4.8		여성	2,174	54.1
	경북	106	2.6	세대	20 대	895	22.3
	광전	143	3.6		30 대	1,486	37.0
	대구	280	7.0		40 대	1,085	27.0
	대전	96	2.4		50 대	449	11.2
	부산	229	5.7		60 대	106	2.6
	서울	1,751	43.5	노조	미가입	3,417	85.0
	인천	307	7.6		민주노총	518	12.9
	전북	218	5.4		한국노총	86	2.1
	제주	21	0.5				
	충남	132	3.3				
	충북	88	2.2				
	계	4,021	100.0				

업종 특성

		전체	비중			전체	비중			전체	비중
업종	제조	1,730	44.7	제조업	식품제조	86	5	비제조업	건설	93	4.3
	건설	93	2.4		섬유의복	124	7.2		정화재생	26	1.2
	도소매	390	10.1		목재종이	44	2.5		금융	64	3
	운수	93	2.4		석유화학	224	12.9		부동산	34	1.6
	음식숙박	72	1.9		비금속	15	0.9		사업지원	173	8.1
	정보통신	457	11.8		철강	57	3.3		전문기술	302	14.1
	금융	98	2.5		기계	247	14.3		출판방송	60	2.8
	과학기술	302	7.8		전기전자	430	24.9		IT 정보	380	17.7
	사업지원	183	4.7		운송장비	357	20.6		통신	17	0.8
	교육	114	2.9		기타제조	146	8.4		도소매	391	18.2
	보건복지	172	4.4				운수		93	4.3	
	개인	87	2.2				음식숙박		72	3.4	
	기타	81	2.1				가사		29	1.4	
							보건복지		172	8	
						교육공공	181	8.4			
						문화	19	0.9			
						기타	36	1.7			

사업장 규모, 직종, 고용형태, 근속, 임금, 노동시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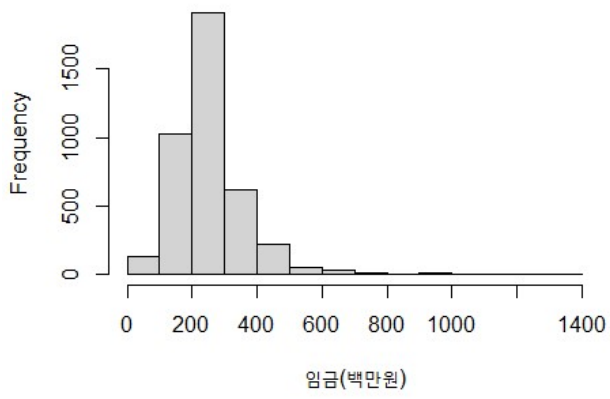
		전체	비중			전체	비중			전체	비중
규모	1~19	1,451	36.1	관리직	관리직	13	0.3	근속	1년 미만	947	23.7
	20~49	833	20.7		전문직	903	22.5		2년 미만	620	15.5
	50~99	550	13.7		사무직	1,510	37.5		5년 미만	1,100	27.5
	100~299	648	16.1		판매직	309	7.7		10년 미만	684	17.1
	300~	535	13.3		서비스직	118	2.9		10년 이상	647	16.2
				숙련직	숙련직	121	3	임금	저임금	493	12.4
			반숙련직		785	19.5	중임금		3,218	80.8	
			단순직		262	6.5	고임금		273	6.8	
				고용	정규직	3,164	78.7	노동시간	11~35	267	6.6
			비정규직		857	21.3	36~40		2,163	53.9	
							41~47		609	15.2	
							48~52		727	18.1	
							53~		251	6.2	

※ 저임금 : 중위임금 2/3 미만, 고임금 중위임금 3/2 이상. 2021.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중위임금 297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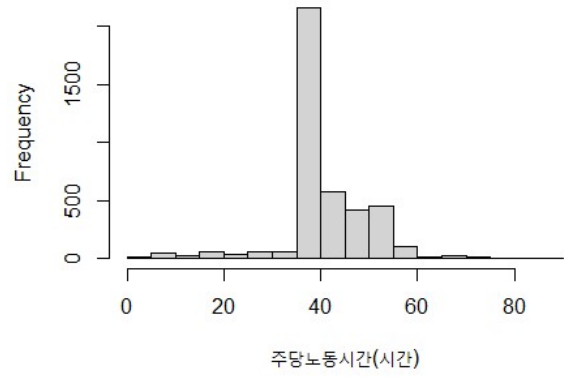
휴게실복지 실태조사 노동환경 (전체 평균)

	나이	근속	임금	노동시간	점심시간	휴식시간	저녁시간
전체	37.9	5.0	273.2	42.6	57.7	20.7	25.1
경기	38.3	6.2	285.8	42.6	55.5	20.6	24.9
경남	38.1	5.2	269.5	44.7	58.8	23.7	23.3
경북	37.6	6.4	244.3	39.4	45.0	21.0	24.9
광전	41.2	6.6	237.3	42.8	55.7	19.6	21.4
대구	41.3	6.2	254.2	45.7	53.5	21.9	27.4
대전	36.8	4.7	266.5	43.9	56.5	22.8	27.4
부산	39.7	5.7	253.8	42.9	55.6	24.9	22.5
서울	36.2	4.4	286.2	41.7	60.6	17.6	24.9
인천	40.7	5.0	260.3	43.6	54.2	27.4	26.6
전북	39.0	4.6	256.7	43.6	58.0	23.5	23.6
충남	37.3	4.4	268.0	43.2	60.2	24.8	28.6
충북	36.7	4.7	260.8	40.4	56.6	24.5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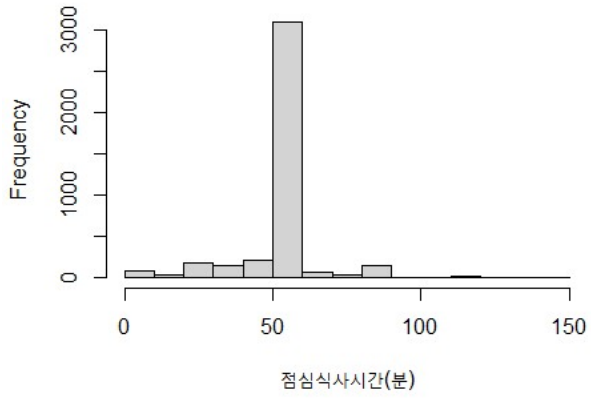
(월)임금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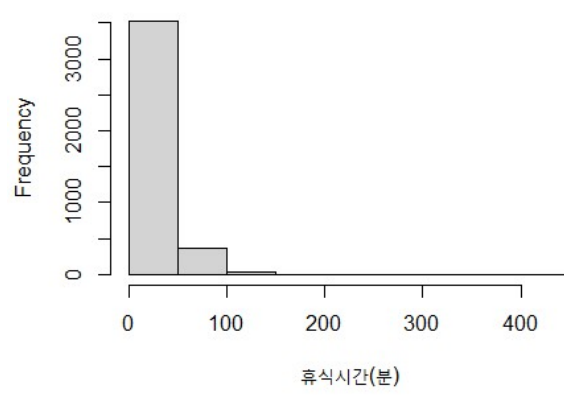
주당 노동시간 분포



점심식사시간 분포



휴식시간 분포



<참고자료 2>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 설문 응답자 중 심층면접에 동의해 준 이들 중, 지역별, 성별, 세대별, 규모별, 업종 및 직종별, 휴게실 유무 등을 고려해 18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진행하고, 7명은 민주노총 조합원 중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3명은 추천을 받아서 진행함. 총 28명을 대상으로 진행.

- 4명은 대면조사, 24명은 온라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함.. 지역별, 성별, 업종, 직종 특징은 아래와 같음.

	지역	성별	세대	규모	업종	직종	휴게실	노조	인터뷰
9	서울	여성	30 대	30~99	제조업	사무직	없음		온라인
58	서울	여성	30 대	300 이상	제조업	사무직	없음		온라인
345	부산	여성	20 대	30~99	제조업	전문직	없음		온라인
369	전북	여성	30 대	300 이상	제조업	사무직	1 개	한국노총	온라인
812	충북	여성	20 대	1~29	제조업	전문직	1 개		온라인
1025	인천	남성	20 대	1~29	사업서비스업	시설관리	없음	민주노총	온라인
1351	경기	여성	20 대	300 이상	제조업	반숙련직	없음		온라인
1583	경북	남성	40 대	100~299	제조업	반숙련직	2 개 이상	민주노총	온라인
2039	서울	여성	30 대	30~99	정보통신업	사무직	없음		온라인
2249	경남	여성	20 대	100~299	보건복지업	사무직	없음		온라인
2627	광전	여성	20 대	1~29	제조업	전문직	없음		온라인
3286	서울	남성	40 대	30~99	정보통신업	전문직	2 개 이상		온라인
3613	부산	남성	30 대	1~29	제조업	반숙련직	1 개		온라인
3684	경기	남성	30 대	300 이상	제조업	반숙련직	없음	한국노총	온라인
3795	전북	여성	40 대	1~29	제조업	반숙련직	없음		온라인
3817	충남	남성	20 대	1~29	제조업	반숙련직	1 개		온라인
3818	경남	남성	30 대	1~29	제조업	반숙련직	2 개 이상		온라인
3859	인천	여성	40 대	30~99	제조업	반숙련직	없음		온라인
4093	서울	남성	20 대	300 이상	전문기술업	사무직	1 개	민주노총	온라인
4094	서울	남성	40 대	300 이상	전문기술업	사무직	1 개	민주노총	온라인
4095	제주	여성	40 대	300 이상	정보통신업	사무직	2 개 이상	민주노총	온라인
4115	서울	여성	50 대	30~99	제조업	생산직	1 개	민주노총	대면
4117	대구	여성	30 대	100~299	제조업	사무직	없음	민주노총	온라인
4396	서울	여성	30 대	100~299	도소매업	전문직	2 개 이상	민주노총	온라인
4397	전북	남성	30 대	30~99	제조업	반숙련직	1 개	민주노총	온라인
4442	서울	남성	30 대	1~29	정보통신업	사무직	없음		대면
4443	서울	남성	30 대	300 이상	정보통신업	사무직	2 개 이상	민주노총	대면
	서울	남성	50 대	1~29	제조업	관리직	1 개		대면